스바냐12-17-2018 ed.

**저자와 기록연대**: 선지자 스바냐(“여호와께서 감추셨다/보호하셨다”라는 뜻)는 히스기야 왕의 4대손으로(1:1), 궁정과 정치적 문제에 익숙했고 이사야와 아모스의 글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. 유다 왕 요시야(주전 640-609 통치) 시대에 사역하였으므로 예레미야, 나훔, 하박국과 동시대 인물이며, 그의 기록은 요시야의 종교 개혁과 앗수르 왕 아수르바니팔의 사망 이전(627)으로 보인다.

**역사적 배경**: 앗수르가 이미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 유다도 위협하고 있었다. 잔인하고 포악한 앗수르는 정복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잔혹하게 처형했고 백성들을 포악하게 다루어서 주변국가들이 크게 두려워했다.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했을 때(욘3:4)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지만 오래 가지 못했고 그들은 다시 이전의 악한 모습으로 되돌아갔는데 이는 마지막 왕 앗수르바니팔 때(주전 669-627)에 절정에 달했다. 그러나 그가 죽자 앗수르의 영향력은 급격히 쇠퇴하여 주전 612년에 바벨론과 메데 연합군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고 만다 (1:15-2:1 참고).

**주제**: 여호와의 날, 즉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며 우상숭배한 유다도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. 그러나 본서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끝맺고 있다.

**개요**

1. 서론 (1:1-3)
2. 제목 (1:1)
3. 서언: 완전한 심판의 선포 (1:2-3)
4. 여호와의 날이 임함: 유다의 심판 (1:4-18)
5. 유다의 우상숭배자들에 대한 심판 (1:4-9)
6. 예루살렘 전역의 통곡 (1:10-13)
7. 피할 수 없는 여호와의 날의 진노 (1:14-18)
8. 열국에 대한 심판 (2:1-3:8):
9. 유다의 회개를 명함 (2:1-3)
10. 블레셋, 모압과 암몬, 구스, 앗수르의 심판 (2:4-15)
11. 예루살렘의 심판 (3:1-5)
12. 예루살렘의 완고함 (3:6-8)
13. 남은 자의 속량 (3:9-20): 소망
14. 정결과 회복 (3:9-13)
15. 기뻐함 (3:14-17)
16. 열국의 회복 (3:18-20)